


2021 KAMA 컨퍼런스 1부

KAMS Art Market & Appraisal Conference

2021년 7회를 맞는 'KAMS Art Market & Appraisal Conference(이하 KAMA 컨퍼런스)'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사업본부의 대표적인 국제 행사이다. 2015년 '아트북과 카탈로그 레조네'를 시작으로 '법률과 유통 시스템', '보존과학', '테크니컬 아트 히스토리', '디지털 아카이빙',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등 매해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공유해 왔다.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소더비 아트 인스티튜트, 테이트모던 등의 주요 기관과 협력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미술시장의 주요 변화와 흐름을 진단하고 담론을 공유하는 행사가 될 것이다.

2021년 'KAMA 컨퍼런스 1부'는 '미술시장과 온라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라는 주제로 온라인에서 개최된다. 팬데믹 이후 다양한 양상으로 확대된 온라인에서의 미술시장 움직임과 새로운 소비자층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올 한 해 미술시장 키워드로 급부상한 NFT와 메타버스 동향을 살펴본다. 나아가 전방위적으로 디지털화된 미술시장에서 데이터의 보안과 손실, 디지털 산업이 촉발한 환경위기, 암호화 작품 시장과 관련한 법적 제도와 경제 전망을 논의하며 온라인 미술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고찰한다.

행사명	KAMA 컨퍼런스 1부
주제	미술시장과 온라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Art Market Going Online: Changes, Chances, and Challenges
행사 기간	2021년 12월 17일(금) 온라인 송출
행사 장소	 예술경영지원센터 유튜브 채널
행사 구성	세션 1. 온라인으로 이동한 미술시장과 컬렉터 Transition to Online: The Art Market and Collectors 세션 2. 미술시장 속 NFT와 메타버스 How NFT and Metaverse dissolved in the Art Market 세션 3. 온라인 미술시장의 지속가능성 Seeking Sustainability: Art Market in the Online Habitat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주 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공동기획	미팅룸 (이경민 미술시장 연구팀 디렉터)
번역협찬	컬처플리퍼

□ 컨퍼런스 구성

세션 I

온라인으로 이동한 미술시장과 컬렉터

Transition to Online: The Art Market and Collectors

첫 번째 세션은 주요 매체의 미술시장 전문 기자를 초청해 온라인 영역으로 확대된 미술시장과 컬렉터 변화를 살펴본다. 팀 슈나이더는 미술시장이 기술과 전략을 활용하며 온라인으로 이동했으나 여전히 기존 관습을 따른다고 보고, 시장 유통 주체와 컬렉터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멜라니 게를리스는 NFT와 디지털아트, 온라인 미술시장 전반을 이끄는 전 세계적 흐름을 살피고, 기존 컬렉터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온라인 미술시장 컬렉터의 소비와 향유 방식을 살펴본다.

● 팀 슈나이더 - “온라인 미술시장에 관한 세 가지 신화”

“Three Myths About the Online Art Market—and How to Leave Them Behind Forever”

1990년대부터 온라인을 통한 미술품 거래는 미술시장의 일부로 자리 잡았으며, 그 이후로 관련 기술 및 전략은 상당히 성장했다. 그러나 2021년 온라인 미술시장에 대한 많은 의견은 현재 시장 상황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오래된 신화를 여전히 따르고 있다. 슈나이더는 발제를 통해 미술품 유통매개자의 노력을 방해하는 세 가지 신화를 분석하고, 컬렉터와 유통매개자 모두를 위해 디지털 판매 전략을 개선할 해결책을 제시한다.



팀 슈나이더
(Tim Schneider)

아트넷 뉴스(Artnet News)의 아트 비즈니스 에디터, 팟캐스트 아트 앵글(The Art Angle)의 공동 프로듀서, 그레이 마켓(Gray Market)의 필자로 활동하고 있다. 경제학, 테크놀로지, 데이터 분석 및 관련 주제의 연구를 통해 얻은 통찰력을 갤러리 분야에 관한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과 접목하고 있다. 아트 바젤의 ‘컨버세이션’ 및 ‘토크 갤러리스’ 심포지엄 등 다양한 패널 토론 행사에 참여하였다.

● 멜라니 게를리스 - “컬렉터 트렌드 2.0”

“Collector Trends 2.0”

새로운 예술에는 새로운 컬렉터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멜라니 게를리스는 NFT, 디지털 아트, 온라인 판매 종목을 위한 자금 출처를 살펴본다. 또한 이 흐름을 주도하는 국가와 산업을 알아보고, 이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를 분석한다. 새로운 컬렉터가 기존의 미술시장 시스템에 어떤 위협으로 작용할지, 그리고 이 시스템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그대로 유지될지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멜라니 게를리스
(Melanie Gerlis)

《파이낸셜 타임스》의 주간 미술시장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아트 뉴스페이퍼》 선임 기자, 런던 핀즈베리 재무 커뮤니케이션 담당 고문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2014년 출간된 『투자 수단으로서의 예술?(Art as an Investment?)』가 있다. 새로운 저서 『아트페어 스토리: 롤러코스터 라이드(The Art Fair Story: A Rollercoaster Ride)』가 2021년 12월 출간될 예정이다.

서언 표

미술시장 속 NFT와 메타버스


How NFT and Metaverse dissolved in the Art Market

NFT는 현재 미술시장을 넘어 여러 산업 분야에서 논의의 중심에 서 있다. 케니 섉터는 기초 발제에서 작가이자 기획자, 교수, 평론가로서 경험한 NFT 관련 활동을 통해 2021년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고 논의되기 시작한 NFT 미술시장의 가능성을 강조한다. 이어지는 인터뷰에는 NFT와 메타버스 관련 활동을 해 온 국내외 미술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주요 창작자, 갤러리, 마켓플레이스, 기관, 기획자, 법률전문가에게 NFT와 메타버스의 가능성과 한계, 전망, 그리고 전문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 등에 대해 다각도의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그들의 경험과 시각을 공유하는 자리다.

● 케니 섉터 - “아이부터 부모까지: 모두를 위한 NFTism!”

“From Babies To Boomers: NFTism is Not Just for Kids!”






NFT는 모든 사람을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도구가 되었다. 이 혁명적인 기술 덕분에 창작자는 스스로 자기 운명을 좌우할 능력을 얻었으며 미술, 음악, 영상 등 원하는 작품을 얼마든지 선보일 시장을 찾았다. 케니 섉터는 작가, 교수, 큐레이터, 비평가로서 관여해온 NFT 관련 활동과 NFT가 작가들에게 열어준 가능성을 소개한다.

	미디어 아티스트, 큐레이터, 아트 딜러이자 아트넷 뉴스의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쿠틀리히대학교 대학원, 더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뉴욕), 뉴욕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디지털 아트에 수년 동안 관심을 가졌던 그는 켈른의 나겔-드라슬러 갤러리에서 최초의 피지탈(phygital: 물리적, 디지털 요소의 결합) NFT 단체 전시를 기획했으며, 2021년 아트 바젤에서 해당 갤러리 부스를 NFT 작품으로 기획하기도 했다. 2022년에는 도쿄의 블룸앤포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케니 섉터 (Kenny Schachter)	

● 인터뷰 패널 - “NFT 미술시장 플레이어”

“Players in the NFTs Art Market”

모더레이터		갤러리현대 전시기획팀에서 근무했고, 『월간미술』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미팅룸의 미술시장 연구팀 디렉터로, 국내외 미술시장 주체들의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매체와 기관을 통해 글을 기고하고 강의해왔다. 공저로 『셰어 미: 공유하는 미술, 반응하는 플랫폼』(스위밍풀, 2019)과 『셰어 미: 재단 이후의 미술, 미래를 상상하기』(선드리프레스, 2021)가 있다.
창작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디지털 크리에이터이다. <Modern Life is Rubbish> 연작을 중심으로 가상의 세계를 확장하고 있고, NFT화한 이 연작 일부가 수퍼레이어에서 약 5억 원에 낙찰되어 국제적으로 주목받았다. 2021년 말 고스트프로젝트(GhostsProject)라는 PFP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
갤러리		페이스 갤러리(Pace Gallery) 온라인세일즈 디렉터이다. 리만 머핀 (Lehmann Maupin), 가고시안(Gagosian) 갤러리 세일즈 직책을 역임했다.
	크리스티아나 보일 (Christiana Boyle)	

	 주연화 (Henna Joo)	아라리오갤러리 총괄디렉터이자 아라리오갤러리 상하이 법인장으로 아라리오갤러리 및 아라리오 산업의 상하이 진출 및 상하이 신규 사업 확장을 총괄하고 있다.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의 문화예술경영 전공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이사이자,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가격 심사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요한 쾨닉 (Johann König)	요한 쾨닉은 기업가이자 예술 매개자로 활약하고 있다. 그가 2002년 베를린에 설립한 쾨닉 갤러리는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갤러리로 꼽히며, 런던, 서울, 빈 등에 분점을 운영한다. 현재 가상 갤러리 공간인 '쾨닉 디지털'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인 'MISA'를 운영 중이다. MISA의 세 번째 에디션은 첫 NFT 마켓플레이스와 함께 론칭되었다.
마켓 플레이스	 린제이 하워드 (Lindsay Howard)	NFT 판매 플랫폼인 파운데이션(Foundation)의 커뮤니티 총괄 책임을 맡고 있다. 킥스타터, 뉴하이프 등 크리에이터 중심의 여러 테크 플랫폼을 개발해 예술계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연결했으며, 가치 평가에 관한 새로운 접근 방법과 디지털 아트를 폭넓게 다루며 집필과 강연도 진행했다.
기관/ 플랫폼	 마이클 코너 (Michael Connor)	마이클 코너는 라이즈의 예술감독으로, '넷아트 앤솔러지(Net Art Anthology)' 이니셔티브를 감독한 바 있다. 웹 기반 전시와 갤러리 전시, 책으로 기획된 이니셔티브는 19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 100점을 통해 온라인 예술의 역사를 재조명한다. 『유 아 히어: 아트 애프터 인터넷(You Are Here: Art After the Internet)』 (코너하우스), 『디지털 비디오 추상(Digital Video Abstraction)』 (UC프레스), 『MBCBFTW』 (하체 칸츠) 등 다수의 서적에 글을 기고하였다.
법률	 캐슬린 김 (Kathleen E. Kim)	법무법인 리우 소속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자 홍익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겸임교수이다. 글로벌 문화예술 분야에서 예술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예술법』 (학교재, 2013 초판, 2021 개정판)이 있다. 2017년부터 NFT 및 메타버스와 예술 산업에 대해 연구해 오고 있다.

세션 III

온라인 미술시장의 지속 가능성

Seeking Sustainability: Art Market in the Online Habitat


시각예술 콘텐츠 대부분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데이터의 보안과 안정성, 디지털 미술시장의 막대한 에너지 소비에 따른 환경위기,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법적 규제와 세법 등의 제도적 이슈 등의 다양한 질문이 제기된다. 본 세션에서는 급변하는 온라인 미술시장 주체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 살펴봐야 하는 질문들을 짚어보고 대안을 고찰해 본다.

● 지가은 (Gaeun Ji) - "디지털 아카이브와 재난"

"Digital Archives and Disasters"

본 발제는 팬데믹 이후 온라인에서 생성, 공유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양이 유례없이 확대되고 예술의 감상과 유통의 과정이 빈번하게 디지털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재난'의 위험성에 주목한다. 먼저 공공재로서의 디지털 콘텐츠와 이것이 유통되는 디지털 시스템의 인프라, 예술 아카이브의 특수성에 초점을 두고 포괄적인 범주의 디지털 아카이브의 의미와 디지털 재난의 개념을 짚어본다. 이어 데이터 소실 및 유출, 시스템 장애 등을 포함하는 디지털 재난의 구체적인 유형과 국내외 문화예술계에서 발생했던

재난 사례를 살펴보는 한편, 국내외 예술계 디지털 아카이브의 관리 체계 현황도 둘러본다. 디지털 재난의 유형과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재난 시나리오의 설계, 이에 따른 구체적인 재난 예방 및 비상 대응 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앞으로는 각종 온·오프라인 재난에 대비하는 문화예술계의 실질적인 실천과 연대의 노력이 미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p>미팅룸의 아트 아카이브 연구팀 디렉터로 영국 골드스미스 대학에서 아카이브 아트를 주제로 시각문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매뉴얼 구축 및 운영 프로그램 구축’ 연구 사업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했다. 공저로 『셰어 미: 공유하는 미술, 반응하는 플랫폼』 (스위밍풀, 2019)과 『셰어 미: 재난 이후의 미술, 미래를 상상하기』 (선드리프레스, 2021)가 있다.</p>
---	---

지가은
(Gaeun Ji)

● **샬롯 켄트** - “블록체인 환경을 사유하는 예술가들”



“Artists Reflecting Blockchain's Environment”

현대미술에서 생태적 인식은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제였으며, 예술가들도 이 주제에 관한 작품을 수십 년간 제작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작업 증명이라고 불리는 관행 때문에 우려를 더욱더 증대시킨다. 이 담론은 블록체인 관행 및 용어에 관한 일반적인 개요부터 시작해 예술가들이 블록체인 및 ‘오프 체인’을 모두 활용해 블록체인의 환경적 영향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살펴본다. 이들의 작업은 블록체인이 우리의 선택을 통해 설계할 수 있는, 아직 개발 중인 사회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 **빅토리아 시달** - “디지털은 어떻게 탄소 발자국 절감을 돕거나 방해하는가?”

“How Can Digital Help and Hinder Us in Meeting the Goal of Reducing our Carbon Footprint?”

팬데믹 기간에 디지털은 미술시장의 생명줄이 되어주었고,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도 달라졌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명확하게 알아차리거나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활동 역시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남긴다. 갤러리 기후 연합(GCC)은 갤러리와 기타 예술 단체가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50%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에 디지털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디지털 수용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p>샬롯 켄트 박사는 미국 뉴저지의 몽클레어 주립대학교 예술대학의 시각 문화(visual culture)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예술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있으며,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의 영향 및 부조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p>
	<p>빅토리아 시달은 프리즈의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4년부터 프리즈의 일원으로 활약해 온 그녀는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기 이전에 글로벌 디렉터로 일한 바 있다. 갤러리 기후 연합(Gallery Climate Coalition, GCC)의 창립 멤버로도 활동하고 있다.</p>

샬롯 켄트
(Charlotte Kent)

빅토리아 시달
(Victoria Siddall)

● **패널 토론 - “온라인 미술시장을 둘러싼 제도와 정책”**

“Systems and Policies Around the Online Art Market”

급변하는 온라인 미술시장 주체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블록체인 전문가 및 미술시장 전문가들이 모여 저작권과 세금 관련 법안과 규제 등을 논의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안한다.


<p>모더레이터</p>	 십지언 (Jieon Shim)	<p>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사업본부장이다. 미술사를 전공하고 미술관, 비엔날레 등에서 전시 기획자로 근무했으며, 미술시장과 정책, 국제 교류 등에 대한 글쓰기와 연구, 강의를 하고 있다.</p>
<p>발제</p>	 이재경 (Jaekyung Lee)	<p>변호사이자 건국대학교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교 학사, 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미술법, 조세법)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런던 시티대학교에서 문화정책석사(MA)를 받았다. 국립현대미술관, 아트선재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법률자문으로 활동하고 있다.</p>
	 채상미 (Sangmi Chai)	<p>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이자 블록체인 경영학회 국제분과 부회장을 맡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블록체인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의 기획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p>
<p>토론</p>	 이정봉 (Bong Lee)	<p>서울옥션블루 대표이사와 엑스바이블루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전 서울옥션홍콩 고문, 가나아트뉴욕 대표직을 역임하였다.</p>

KAMA 컨퍼런스 2부

KAMS Art Market & Appraisal Conference 2021

2021년 7회를 맞는 ‘미술품 감정 및 유통기반 구축 컨퍼런스 (KAMS Art Market & Appraisal Conference, 이하 KAMA 컨퍼런스)’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사업본부의 대표적인 국제 행사이다. 2015년 ‘아트북과 카탈로그 레조네’를 시작으로 ‘법률과 유통 시스템’, ‘보존과학’, ‘테크니컬 아트 히스토리’, ‘디지털 아카이빙’,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등 매해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공유해 왔다.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소더비 아트 인스티튜트, 테이트모던 등의 주요 기관과 협력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미술시장의 주요 변화와 흐름을 진단하고 담론을 공유하는 행사가 될 것이다.

2021년 ‘KAMA 컨퍼런스’ 2부는 ‘한국 미술시장의 결산과 전망’라는 주제로 온라인에서 개최된다. ‘21년 성장과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 한국과 세계 미술시장을 데이터 중심으로 분석하고, 미술품의 투자 상품으로의 가치 상승, 디지털 기술 융합과 온라인 미술시장의 확장, MZ 세대의 시장 진출, 해외 경매사·화랑·아트페어의 진출 등 주요 이슈를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본다. 나아가 성장과 변화의 이면에 존재하는 위협요인을 진단하여 한국 미술시장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행사명	KAMA 컨퍼런스 2부
주제	한국 미술시장의 결산과 전망
행사 기간	2021년 12월 30일(목) 온라인 송출
행사 장소	 예술경영지원센터 유튜브 채널
행사 구성	세션 1. 미술시장의 성장과 변화 세션 2. 미술시장의 성장과 도약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주 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컨퍼런스 구성

세션 I

한국 미술시장 결산

첫 번째 세션은 미술시장 딜러와 전문기자를 초청하여 한국과 세계 미술시장의 변화 및 성장 상황을 살펴본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수집한 미술시장 데이터를 중심으로 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고 해외 경매 및 아트페어, 리포트를 통해 보고된 정보를 토대로 국내와 세계 미술시장의 성장 및 변화 양상을 비교 분석한다. 또한 MZ 세대의 소비 패턴과 시장 영향력 분석과 한국 미술시장의 성장 동력과 위협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장기적 미술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저해 요인 해소방안과 대비책을 마련한다.


● K-ARTMARKET - “한국 미술시장 결산”

2021년 11월 기준 한국 경매시장은 2,968억 원으로 12월 예상치 합산 약 3,280억 원 기록을 예측한다. K-ARTMARKET은 경매 데이터와 더불어 미술시장실태조사와 아트페어 공식 발표 자료 등을 토대로 한국 미술시장 시장 규모를 객관적으로 예측하고 주요 이슈와 키워드를 통한 동향 분석과 전망을 다룰 예정이다.

K-ARTMARKET	2016년 오픈한 K-ARTMARKET(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www.k-artmarket.kr)은 98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경매회사를 통해 거래된 미술작품 정보와 미술시장 전문가와 함께 데이터, 이슈 기반 미술시장 분석 리포트를 발행하고 있다.
-------------	--

● 이슬기 - “한국 및 세계 미술시장 비교 분석”

한국과 더불어 세계 미술시장 역시 변화와 성장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외 주요 경매사와 아트페어의 거래 동향과 아트바젤, 아트프라이스 등 분석 자료를 통하여 세계 미술시장의 성장 배경 및 변화의 주요인, 이벤트와 이슈에 따른 변화 양상, 선호 구매처와 장르, 세대별 구매 동향 등 주요 차이점과 특이점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이슬기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미술시장실태조사의 해외 미술시장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경희대에서 경영학 전공 후 SK커뮤니케이션즈 경영기획팀에 근무하였으며, 소더비(Sotheby's, London)에서 아트비즈니스 석사(MA)후 선화예술문화재단 큐레이터로 근무했다.
--	--

● 조상인 - “세대별 미술품 소비 패턴의 변화와 시장 영향력”

MZ세대는 기성세대와 다르다. 투자에 의미를 담고, 상품이 아닌 가치에 아낌없이 소비한다. MZ세대의 미술시장 진출 의미와 그들의 구매력, 영향력 분석을 통하여 차별성과 성장 가능성을 도출하고 기성세대와의 차이점 분석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장 참여와 저변확대를 위한 전략을 도출할 예정이다.



조상인

2003년 기자 생활을 시작하여, 2008년부터 14년간 서울경제 문화부에서 미술전문 기자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 미술대학원 협동과정 미술경영 석사로 대표저서에는 “살아남은 그림들”과 “퇴근길 인문학(공저)”가 있다.

● 변지애 - “미술시장 성장 진단”

성장 동력에 집중하는 것 만큼 그 이면에 존재하는 문제점과 위협요인을 분석하여 적합한 해결 방안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장과 하락을 반복했던 한국 미술시장은 다시금 성장을 위한 기회가 왔다. 지속되지 못했던 내·외부 원인과 당면한 현안을 분석하여 `21년 그 이후의 중장기적 미술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저해 요인 해소 방안과 대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변지애



케이아티스츠 아트컨설팅 대표로 글로벌 아트마켓 강의와 문화예술 기관 아트 프로젝트 기획,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 과리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 소장품 전 아시아 투어를 총괄하였고 키아프 컬렉터 어드바이징 프로그램, 아트부산 미디어 홍보 및 VIP 초청 도스트를 진행하였다.

세션 Ⅱ

미술시장의 성장과 도약

두 번째 세션은 언론, 딜러, 아트페어, 플랫폼 전문가와 함께 한국 미술시장의 중장기적 성장 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블루칩 작가는 한국 미술시장 성장에서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 역시 이들의 영향이 성장을 이끌었으며 동시에 MZ세대가 선호하는 새로운 작가가 나타나며 집중 조명을 받음과 동시에 아트테크 문화 확산에 따라 미술작품의 투자적 가치의 맹점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마켓과 NFT,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디지털 아트가 앞으로의 미술시장을 선도할 주요 영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화랑, 아트페어, 경매 등 기존 시장 규모 또한 성장하는 등 시장은 다각화, 다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장 주체자들 간의 상생적 도약을 위한 전략 수립과 더불어 작가 및 작품, 애호가와 컬렉터 등의 균형적이고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자 한다.

● 토론 - “한국 미술시장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

모더레이터	 김윤섭	현재 아이프미술경영연구소 대표로 국립현대미술관 가격심의위원 및 정부미술은행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2007년 국내 처음으로 대학교에 미술애호가 입문 소양 교육 정기강좌인 ‘미술경영 아카데미’를 시작해, 지금은 숙명여대 평생교육원에서 진행 중이다.
언론	 조상인	2003년 기자 생활을 시작하여, 2008년부터 14년간 서울경제 문화부에서 미술전문 기자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 미술대학원 협동과정 미술경영 석사로 대표저서에는 “살아남은 그림들”과 “퇴근길 인문학(공저)”가 있다.
딜러	 변지애	케이아트스즈 아트컨설팅 대표로 글로벌 아트마켓 강의와 문화예술 기관 아트 프로젝트 기획,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 파리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 소장품 전 아시아 투어를 총괄하였고 키아프 컬렉터 어드바이징 프로그램, 아트부산 미디어 홍보 및 VIP 초청 도스트를 진행하였다.
아트페어	 김동현	서울예술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익갤러리를 시작으로 2018년부터 (사)한국화랑협회에서 전시사업팀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플랫폼	 김예지	런던대 SOAS, 동아시아 미술사 석사 후 서울옥션 글로벌 사업팀과 홍콩 경매팀을 거쳐 현재 아트시 아태평양 갤러리 비즈니스팀에서 근무 중이다.